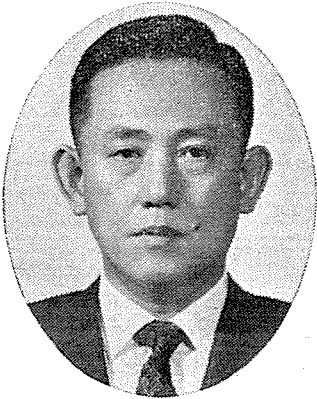


# 時代的 趨勢를

## 科學技術力 精銳化로



崔 亨 燮  
科學技術處長官

오늘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 第11回 定期總會에서 本人이 致辭를 드리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가 10年이라는 年輪을 새기는 가운데 名實共히 139個의 學會 및 團體의 總聯合會로 發展하여 우리 科學技術界의 核心體로서의 基盤을 굳힌것은 科學技術界의 元老들과 會長團및 職員여러분, 그리고 全國 7萬餘 科學技術人들의 獻身的인 努力의 結果라는 데서 이지리를 빌어 그 勞苦에 對하여 深甚한 敬意를 表하는 바입니다.

周知하시는 바와같이 한 나라의 國力이 培養되는데 있어 科學技術은 大端히 큰 比重을 차지합니다.

科學技術의 振興과 暢達은 經濟發展의 推進力이되며 防衛産業을 通해 國家安保의 一翼을 擔當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維新 4次年度가되는 올해는 3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이 마무리되는 해이기도 하며 또한 4次 5個年計劃의 推進을 準備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지난 1, 2次 5個年計劃期間은 科學技術이 飛躍을 하기위해 基盤을 잡기 始作한 期間이였고 3次 5個年計劃期間에야 비로서 다져진 基盤위에서서 科學技術이 經濟發展을 支援할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나아가서 닥아오는 第4次計劃期間에는 우리의 科學技術力을 精銳化하여 工業立國의 基盤을 굳히고 輸出을 위한 國際競爭力強化를 目的으로 技術의 土着化와 革新을 이룩하여 科學技術의 自立化를 成就함으로써 經濟發展을 先導할수 있는 기틀을 잡아야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科技總이 10周年을 맞는 今年은 특히 重要한 時期라 하겠읍니다.

외람된 말씀같지만 科技總의 會長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時代的 趨勢를 透徹하게 認識하시는 가운데 各自가 맡은 本然의 業務에서 最善의 努力을 기울이는 한편 科技總의 發展을 위해 勞苦를 아끼지 않으신다면 우리나라의 持續的인 經濟發展은

# 透徹하게 認識하자!

## 工業立國의 基盤근히자

勿論이고 科技總의 繼續的인 繁盛도 틀림없이 約束되는 것이라고 믿어마지 않습니다.

거듭 強調합니다만 앞으로 우리의 科學技術을 우리나라 經濟發展을 支援하는 데 攄치지 않고 先導해 나가도록 發展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政府에서 그것이 解決이될때 國家經濟發展에 確實히 寄與가 된다고 判斷되는 長期的이고도 大型의 科學技術「프로젝트」를 많이 反映시키도록 하겠읍니다만 그런 「프로젝트」들을 圓滑히 解決해 나가는데 있어선 바로 科技總의 여러분들의 絶對的인 協力이 必要하다고 하겠읍니다.

지난 數年동안에 科技總은 새마을技術奉仕團의 活動을 通하여 새마을 運動에 積極參與했고 技術의 普及과 擴散을 通해 全國民의 科學化運動에도 拍車를 加해 주었읍니다. 새마을技術奉仕야말로 國民生活를 科學化하는데 지름길을 마련하여 새마을運動에 크게 貢獻하는 뜻깊은 活動이라고 보고 있읍니다.

그동안 科技總이 걸어온길이 險難했듯이 앞길에도 많은 難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날의 經驗을 거울삼아 忍耐와 努力으로 슬기롭게 對處할때 能히 繁盛의 길은 열릴것입니다.

모쪼록 科技總은 지금부터 倍前의 努力을 通해 앞으로 10年뒤엔 믿음직한 成年의 모습을 先進國隊列에 선 祖國앞에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읍니다.

끝으로 政府에서 國家安保의 次元에서 積極推進하고 있는 庶政刷新作業에 科技總에서도 協調해주시기를 부탁하는 바입니다.

다시한번 會長團을 비롯한 會員및 職員여러분들의 勞苦를 致賀드리며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의 無窮한 發展과 여러분의 健勝을 빌어 마지 않습니다.

感謝합니다.